

# 불교와 과학의 만남 "불교 이해폭 넓혀"

## 고려대장경연구소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 세미나

불교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공(空)'과 '연기(緣起)'.

이 두 사상이 '서구문화 및 현대 과학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화·다원화되면서 불교해석의 길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한 세미나가 9일 오후 2시 동국대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가 '공과 연기의 현대적 조명'을 주제로 개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기초발제에 나선 소홍렬 교수(이화여대 철학)는 "외부 사상과 영향을 주고 받으며 전개, 발전된 불교가 만약 외부 사상과의 관계를 끊고서 불교만의 세계를 고집했다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불교를 서구 현대과학의 영역과 접목시켜 보는 등 현대적 의미로의 재해석은 또한 다양한 불교주의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구 과학과 접목 시도

#### 불교이해의 길 확장

- 소홍렬 교수 -

#### 불교적 수행과정

#### 마음과 의식의 진화

- 윤혜린씨 -

그 예로 소교수는 "서구의 도구주의적 발상이 <중론(中論)>에서 보여준 옹수의 논리적 분석 방법을 컴퓨터 프로그래밍화 한다면 유용한 임상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학 심리학 등의 인지과학과 의식과학 탐구가 불교의 재해석은 또한 다양한 불교주의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 마음 이해와 현대과학의 마음 설명을 관련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불교와 마음의 진화'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윤혜린씨(이화여대 철학 강사)는 "생물학의 진화론에서 '진화'의 개념을 확대해 마음의 진화 또는 의식의 진화 가능성으로 연장해보면 불교적 수행의 과정이 우리의 의식에 가져오는 변화가 곧 마음과 의식의 진화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깨달음은 마음의 진화를 추동하는 힘이다"며 "불교는 마음의 진화에 기반해 있으며 불교적 수행법은 마음의 진화를 가능케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호적 인과로서의 연기'에서 박소정씨(이화여대 철학과)는 연기와 인과의 형이상학적 차이를 밝히는 가운데 불교의 '연기'와 서양의 '인과(因果)' 개념의 접목을 시도했다.

박씨는 "인과(因果)의 개념이 확장되고 연기가 제한되지 않는다면 '상호적 인과'의 연기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연기와 인과를 연관시키고자 하는 작업이 일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보다 포괄적 현상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전제한 박씨



9일 동국대에서 열린 '공과 연기' 세미나.

김정은 기자

Location: /r/isis/infinet.com/rinpoche/

Our Vision: To Spread Buddhadharma and Support all Buddhist Projects Worldwide. We would like to dedicate this Friends of Buddhism Website to the founder of Buddhism, Shakyamuni Buddha, the Ven. Buddhist Masters, and Tibetan Rinpoches: Wei-Chie, Hsin Yun, Sheng Yen, Yin Shun, Chen Yen, H.H. The Dalai Lama, H.H. The Karmapa, Dilgo Khyentse Rinpoche, Kahu Rinpoche, Tai Situ Rinpoche, Chakrasamvara Rinpoche, Sakyang Mipham Rinpoche, Khenpo Karbar Rinpoche, Bardor Tulku Rinpoche.

###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국제단체 불교우의회

## 지역·교파초월 불교정보 열람 달라이라마·틱낫한스님 등 설립

지역과 교파를 초월한 불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이 곳은 불법 포교와 세계 각국에서 추진하는 불교사회운동을 지원하는 국제인 불교우의회(Friends of Buddhism, 이하 FOB)가 개설한 사이트.

티벳의 달라이 라마(Dalai Lama), 일본의 스즈키 로시(Suzuki Roshi), 베트남의 틱낫한(Thich Nhat Hanh), 대만의 성운스님 등 현대 불교신도들이 존경하는 고승들이 가상공간에서 설립한 FOB는 티벳·중국·인도·베트남 불교계의 연합단체로 널리 알려졌다.

△올해 8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까라짜끄라 진언(Kalachakra Mantra)에 관한 대규모 강좌 소식을 접할 수 있다. 티벳의 승왕 달라이 라마는 이번 강좌에서 진언에 담긴 여래의 온갖 공덕을 가르치고 불교신도들의 경화 정신을 고양할 예정이다.

까라짜끄라 진언은 일체계를 두고 여닫게 만든 서가의 중심에 돌아가는 기둥은 세우놓고, 이것을 둘러서 대장경을 실재로 읽은 공덕을 기리는 진언.

2천5백년전 부처님이 가르친 이 진언은 고대 인도와 티벳에서 널리 애송됐다.

이 곳에서는 진언의 원문과 영어로 음역된 것을 열람할 수 있다.

△중국 북경 소재 링광(Ling Guang) 사원에 세워진 부처님 사리탑에 대한 북경인들의 친견 소식을 전해준다. 치(齊)왕조(424-498) 시대에 건립된 사리탑은 정장 3미터의 대탑. 중국 불교연합회는 1964년부터 이곳에서 캄보디아, 스리랑카, 몽골, 일본의 불교도들을 초청, 대규

모 범회를 병행해오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행사의 사리탑 전경 사진을 다운로드(가져오기)할 수 있다.

△ 동산·틱낫한·성운스님 등 FOB가 선정한 14명의 고승의 수행, 교학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승 중에는 중국 선승으로서 일본 불교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동산(Dong Shan·806-869) 스님의 오도송과 법기량이 상세히 기록된 행장도 열람할 수 있다.

△부다다사 스님의 <사색의 양식(Food of Thought)>, 아잔 상메도스님의 <조용한 마음의 가르침(Teaching from the Silent Mind)> 등을 비롯해 28권의 불서도 선정하고 진언이 수록된 테이프 8종도 소개한다. 또 <반야심경>과 <열반경>을 영어·한문본으로 각기 제공하며 진언과 티벳불교와 관련된 일반 상식도 알려준다. 개설된 20년 이상의 법랍을 가진 스님 중에서 중관(Madhyamika), 아비달마론(Abhidharma), 율장(Vinaya), 논장(Pramana) 등의 공부를 마친 고승을 지칭한 것.

△FOB는 <Reader's Garden>이라는 인터넷 전자잡지도 발행하고 있다. 이 잡지는 FOB가 권장하는 '생활선'과 관련된 불교적 사상이 많이 실려 있다.

FOB의 생활선은 올바른 세계로서의 사업체와 지역 공동체에 협동으로 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독특한 서구불교 생활양식. 이를 통해 FOB는 현대 서구사회의 관련있는 방식으로 불교를 표현하고 불교의 본질은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http://isis.infinet.com/rinpoche/

### 학술단신

#### 불교학회 춘계학술회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인덕)는 제29회 춘계학술발표대회를 21일 오후 2시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갖는다.

'승랑 상속(僧朗相承)의 대승진리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반야사상의 동점(東漸)과 그 이해(계환스님·동국대 교수) 등 5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02)260-3122

#### 불학연 25일 세미나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말원스님)는 '근대불교의 승가교육'을 주제로 25일

오후 2시 동국대 소강당에서 춘계세미나를 연다.

△일제의 종교정책(김순석·호신대 교수) △일제하 승가교육과 근대화(정재정·동국대 강사) 등 4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02)732-4921

#### 8회 가산학술상 공모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은 제8회 '가산학술상' 및 '가산학술총서' 연구자를 공모한다.

'가산학술상' 공모 대상은 불교학 및 관련 연구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 미발표 논문 초록 1부와 총장기 연구 계획서 1부, 발표논문 및 저서를 이력서와 함께 6월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02)765-9602

## 문헌에 나타난 연기·흠 고찰

### 이종철교수 논문 발표

<구사론>등 문헌학적 기초연구어 바탕, '연기(緣起)'와 '고(苦)'·'불교적 세계관의 성립인 '형이상학'임을 밝힌 논문이 나왔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종철교수는 9일 열린 '97년도 의무과제 발표세미나'에서 '연기'와 '고'의 문제를 분석한 논문 '연기와 고-불교와 형이상학'을 발표했다.

이교수는 "삼의 개별적인 현상 자체보다는 한걸 근원적인 '그 어딘' 것, 곧 삼의 근저에 놓여있는 총체적이고 근원적인 현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의 성립이 '형이상학'이라면 우리가 '불교적 세계관'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영역에 관계



된 제 문제는 불교사상에 보이는 형이상학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연기의 범어표기 'pratyasamutpada'의 성립과정을 통해 어의(語義)분석을 시도하고, '연기의 이구(二句)' 해석에 관련된 제문헌을 분석해 봄으로써 연기의 함의를 고찰했다. '연기의 함의'는 <구사론>의 저자 와수반두가 밝힌 '연기의 이구(이것이 있을 때

저 것이 있다. 이것이 생기하므로 저 것이 생긴다)'로 드러나며, 연기적 세계관은 필연성의 세계를 부정하고 본질적 원인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의 외연(外延)과 내포(內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체개고는 성자(聖者)의 현관(現觀)이란 인식행위에서 제시된 명제다 △'고'의 성립근거는 '성자들이 거부하는 것'에 있다고 제시했다. 즉 번뇌에 물든 삼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제현상(無漏法)은 인연에 따라 생멸하는 무상한 존재로, 무상한 존재는 무위(無爲)를 갖춘 성자들이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괴로움(苦)이라는 것이다.

이교수는 "이번 연구의 초점을 부처님의 근본사상에 맞추어 불교적 세계관을 재검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

### 국제소식

## 독 명상센터 규제범안 파문

독일 연방의회가 정신요양·치료를 받고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초안하고 있는 '상업적 정신치료 관련 소비자보호법'이 독일 불교계에 파문을 던지고 있다고 지난달 29일 독일의 오소미디어(oshmedia)가 보도했다.

이번 파문은 연방의회가 초안한 '보호법'이 독일불교계의 명상 요가 등의 치료 행위를 상업적 의료행위로 분류한 반면 교회 등이 설립한 연구소의 의료행위는 비상업적인 것으로 구분 한정하는 데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명상센터 내에서 일반 수행자들의 보시금과 후원금으로 정신요양·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온 독일불교계는 이번 보호법이 통과될 경우 명상센터의 운영 조차 까다로운 '보호법'의 검열을 통과해야 하는 파행적 행정처분이 뒤따를 것으로 추정된다.

## 시베리아서 티벳불교 곤혹

러시아 불교학자 आयुषेय(Ayushyev)가 티벳의 고대 의화사적을 보존하려고 필사의 노력을 보여 주목되고 있다.

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고서는 9세기 무렵 티벳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된 <인제 해부도>로 1953년까지 티벳의 라사에 보관되어 있다가, 중국의 강점과 더불어 해외로 유출됐다는 것. आयुषेय는 "러시아 정교의 교세가 가장 큰 시베리아 지역에서 티벳불교와 문화의 말살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히 경찰들은 도서검열을 강화, 티벳불교서적을 계획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러시아의 문화단체들이 마련해준 비밀 피난처에서 망명을 준비하고 있는 आयुषेय는 이 고서 외에도 40여 점에 달하는 티벳불교미술품을 보호하고 있다.

## 美 뉴욕 '티벳하우스' 개원

티벳 불교와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티벳하우스'가 4일 뉴욕에서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티벳 승왕 달라이 라마, 미국의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 등 미국의 불교신도들이 대거 참여한 문화원 개원식에서 티벳하우스 중앙홀에 세워진 황금불상이 가장 눈길을 끌었다.

티벳하우스는 티벳의 고전과 현대의 예술뿐만 아니라 티벳의 언어와 의학, 종교 서적 등을 전시해 티벳의 문화를 서구에 알리는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개원식에서 달라이 라마는 티벳의 독립을 요구하는 단식투쟁과 분신자살 등 최근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그들의 행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도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 제가 불자를 위한 전통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본 연구원은 제가 불자들의 일상 생활속에서 생활행동을 체계적이며 실질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수행할 수 있는 불교의 전통수행 방법을 다양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에 접목시켜 생활불교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설립 하였습니다.

제가 불자들의 일상사와 인생 결정점의 통과절차에 필요한 불교의식을 간결하면서 이해하기 쉽고 참여가 용이하게 구성하여 전통불교의식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본 강좌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회 포교분과 위원회에서 제가 불자 수행 체계화라는 주제에 따라 연구한 내용입니다.

- 교 양 반 ●
- 일용의식 : 조석예불, 기도, 공양의식, 법회 의식
- 상용의식 : 문성, 안택, 개입, 준공의식
- 통과의례 : 돌, 결혼, 회갑, 장례, 성묘의식
- <매주 월, 목요일 오후 3시>
- 기 초 반 ●
- 도량식, 중성, 예경, 불공, 천도의식, 특별의식
- <매주 월, 목요일 오후 7시>
- 금강경강의 ●
- <첫째, 셋째 토요일 저녁 7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7-1 ☎ 02)511-0108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의식연구원

원 장 성 마

(불교방송문화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어산작법학교 강사)

### 젊은 佛子여 내일을 열자!!!

- 믿음 기술 자금으로 2001년 主人이 되자 -

자연계는 섭리세계(攝理世界)의 궤도이탈(軌道離脫)로 혼돈의 골이 깊어만 가고 있으며, 인간생활은 자기부정(自己否定)의 극한상황 속에서 생존경쟁으로 빛어진 갈등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제 우리는 황량(荒涼)한 생명의 여백(餘白)을 믿음을 통한 인성회복(人性回復) 노력생활(勞作生活)을 통하여 기술습득과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36개월후 당당하게 내일의 주인공으로 출사(出師)코저 한다.

- 참 고 사 항 ●
- 1. 불자가정으로, 독립유공자의 후손 호국영령의 자손 가운데 공업고(工業高)수료와 병역의무를 필한다.
- 2. 36개월 공동생활 장소는 부산시 금정구 소재 1,350평 위에 4개동의 건물 준비
- 3. 원장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방대학원, 외교연구원 수료, 고회를 맞아 평생의 숙원을 결심코자 함.
- 4. 통신연락은 팩스(FAX): 02)925-1661로 가능하며, 반드시 전화번호를 명기할 것. 팩스접수후 회신함.

1998년 5월

忠孝文化院

### 도심속의 명당 · 사찰부지

■ 명당·사찰부지 위치도

- 정남향!
- 북한산의 명봉이 한눈에 들어오며
- 노고산 심곡의 옥수같은 계곡물이 앞마당으로 흐르는 명당의 사찰터
- 명품처럼 들리치진 뒷동산 배경은 부처님을 바라보는듯 편안함을 누구나 보는 사람마다 느낀다고 함
- 도심속의 심산계곡 여름엔 숲이 우거져 시원하고 겨울엔 눈부신 햇살에 쌓인 낙엽이 숨이불처럼!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교현리 447-6

☎ 0351)826-3665